2019 'Book돋움' 백서

인 하 대 학 교

정 석 학 술 정 보 관

발 간 사

전 세계로 급속하게 번져 나가는 코로나19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가 되면서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하던 때가 아주 오래 전의 일처럼 느껴지고, 단순했던 일상이 몹시 그리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에 정석학술정보관에서 가졌던 여러 행사들을 돌이켜 보니, 더욱더 소중하고 귀중했던 경험으로 다가옵니다.

좋은 책을 써 주신 두 작가님께서 학생들을 위해 정석학술정보관을 찾아 주셨습니다. 김상욱 교수님을 모시고 들었던 '울림과 떨림'이라는 주제의 강연은 여러모로 신선함을 던져 주었습니다. 과학을 주제로 하면서도 철학에 바탕을 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혜민 스님께서는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마음이 힐링되는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두 강연 모두 국제회의장의 계단까지 자리를 채웠던 학생들의 호응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학기가 거듭될수록 열기를 더해가는 밤샘독서 모임.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한번 참석했던 학생이 또다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밤샘 독서를 같이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마음을 열고 서로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던 순간순간은 물론 중간에 잠을 쫓기 위한 오락 시간, 창가 큰 도화지에 그려진 그래피티 등 모든 일이 소중한 추억이 되어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 새벽에 도서관을 나설 때에는 뿌듯한 느낌으로 피곤함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 그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어려운 이 시기에, 한 권의 책으로 보람차고 의미있는 나날을 만들어 나가길 기원해 봅니다.

2020년 3월 27 일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장 이 병 찬

< 목 차 >

Ⅰ. 개요

1. 배경 ····· 4
2. 목표 ····· 4
3. 필요성 ····· 4
4. 조직도 ····· 5
5. 사업내용 도식 ····· 5

Ⅱ. 세부 추진방법 및 내용

1. 'Book드림' ····· 6
2. 'Book새통' ····· 8
3. '밤샘독서' ····· 10

Ⅲ. 실적 및 기대 성과 ····· 13

Ⅳ. 향후 발전계획 ····· 14

Ⅴ. 후기 및 수상작품 모음

1. 'Book드림' 심사후기 / 우수학생후기 ····· 15
2. '밤샘독서' 심사후기 / 우수학생후기 ····· 22

□ 부 록

○ 2019학년도 예산현황 ····· 30
○ 2014 – 2019 'Book돋움' 대비표 ····· 32
○ 관련 기사 ····· 38
○ '정석100선' 목록 ····· 59

Ⅰ 개 요

1. 배경

: 양질의 추천도서목록을 제공하여 좋은 책을 선택하는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고 독서습관 정착으로 도서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 「인하100선(選) 선정을 통한 독서 진흥 프로젝트」(2011년 '직원 지식창조상') 가 2012-2013학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지정되어 「책 읽는 리더 양성 – 독서권장 프로젝트 'Book돋움'」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2014학년도에는 입학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사업'으로, 2018년부터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의 일환으로 진행하였음

2. 목표

가. 독서권장을 통한 도서 이용률 증대

나. 즐기는 독서문화 조성 및 확대

다. 독서후기 공모에 따른 글쓰기 능력 및 논리적 의사표현력 향상

라. 저자와의 소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배양

마. 문학적 체험과 토론문화 활성화로 비판적 사고력 배양

바. 도서관의 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역동적이고 친근한 이미지 제고

사. 전문성과 교양을 겸비한 글로벌 스마트 인재 양성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

3. 필요성

가. 영상 및 전자정보 증가에 따른 대학생들의 독서량 감소로 창의력 저하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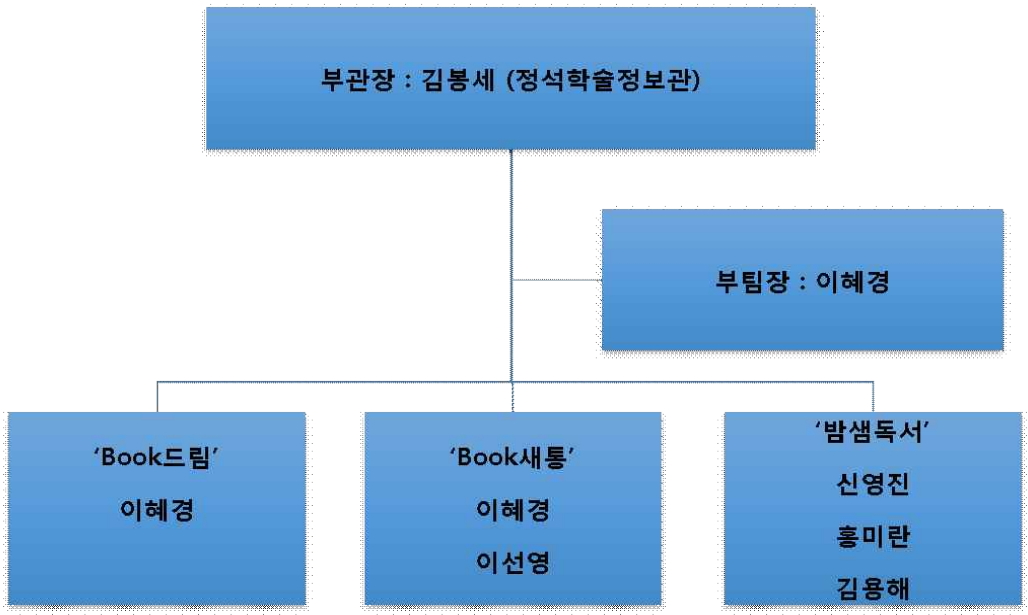
나. 소설 및 실용서 위주의 독서 선호 개선

다. 양서 선택의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라. 평생학습시대를 대비한 자발적인 독서 습관 형성

마. 학점 취득과 취업 대비에 지친 학생들에게 풍부한 학식과 교양을 지닌 멘토와의 소통 기회 및 문학적 체험 기회 제공

4. 프로젝트 추진 조직도



5. 사업내용도식

Ⅱ 세부 추진방법 및 내용

1. 'Book드림'

가. 배 경

: 독서 장려 활동의 일환으로 독서 경험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진행하는 독서권장 프로그램

나. 목 적

1) 독서 권장을 통한 도서 이용률 증대
2) 즐기는 독서문화 조성 및 확대
3) 문학적 체험과 토론문화 형성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과 안목의 배양
4) 후기 및 서평작성을 통한 글쓰기 능력 및 논리적인 의사 표현력 향상
5) 교양과 상식을 겸비한 인재의 배출로 대학 경쟁력 강화

다. 필요성

1) 영상 및 전자정보 증가에 따른 대학생들의 독서량 감소로 인한 창의력 저하
2) 실용서 위주의 독서선호 개선 : 흥미 위주의 독서습관 현상
3) 평생학습시대를 대비한 자발적인 독서 습관 형성 필요

라. 추진일정

기 간	내 용
2019. 6. 24 ~ 8. 18	독서후기 접수
2018. 8. 19 ~ 8. 22	독서후기 심사
2019. 9. 17.	발표 및 시상

마. 추진내용

1) 독서 후기 제출 공지

- 'Book새통' 강연자 도서(김상욱의 과학공부, 동아시아)를 읽고 독서후기 제출 (1,000자 이상)

2) 독서후기 우수작 시상

상급	명 단	상 금
최우수상(1명)	이*민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시상금 20만원
우수상(1명)	김*진 (국어교육학과)	시상금 10만원
장려상(3명)	김*찬 (전자공학과) 노*진 (국어교육학과) 문*욱 (기계공학과)	시상금 5만원
가작(5명)	이*람 (화학공학과) 조*재 (전기공학과) 감*정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임*학 (기계공학과) 임*혁 (산업경영공학과)	시상금 3만원

바. 효 과

1) 독서 문화 조성 및 확대를 통해 즐기는 독서 습관 형성

2) 독서를 통한 지적 경쟁력 강화로 취업률 향상 기대

3) 교양과 상식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

사. 향후 발전 계획

1) 안정적인 예산 확보로 지속적인 사업 시행

2)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학생 교양 증진에 기여

아. 자체평가

1) 연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상하는 독서 매니아 층이 형성되고 있음

2) 'Book새통' 강연자 도서를 독서후기 도서로 선정하여 홍보 효과가 있었으며, 과학은 어렵고 전문적이라는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함

2. 'Book새통'

가. 배 경

1) 개인주의 확산으로 의사소통 능력 저하
2) 대학이 취업 준비 기관으로 전락함으로 인해, 인문학적 소양을 배양하기 어려운 현실
3)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서 목표를 상실한 대학생들에게 삶의 방향성 제시

나. 목 적

1) 'Book새통'(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작품 및 작가와의 공감대 형성
2) 비판적 사고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3) 'Book새통' 이벤트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 형성
4) 후기 작성을 통해 향후 'Book새통' 행사에 대한 활발한 참여 유도

다. 필요성

1) 독서를 통하여 의사소통 능력의 저하로 인한 소외와 단절을 극복하여,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 형성
2) 인문학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나아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 마련
3) 유명 저자의 강연을 통해 삶의 방향성을 찾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라. 추진일정

<1차>

기 간	내 용
2019. 4. 26	강연자 섭외 : 김상욱 교수 초청
2019. 7. 11	강연 주제 선정 : '울림과 떨림' - 물리의 눈으로 본 우주, 세계 그리고 인간 -
2019. 9. 2. ~ 9. 8.	홍보물 제작 및 배포
2019. 9. 18.	강연 진행 (참가자 : 230명)

<2차>

기 간	내 용
2019. 4. 27. ~ 5. 21	강연자 섭외 : 혜민 스님 강연 주제 선정 :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2019. 10. 10 ~ 10. 31	홍보물 제작 및 배포
2019. 10. 28 ~ 11. 12	신청자 접수
2019. 11. 13	강연 진행 (참가자 : 300명)

마. 추진내용

1) 행사내용

-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교내 및 교외 강연자 초청
- 강연 및 대화 등을 통하여 희망적 메시지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이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

바. 효 과

- 작가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통한 참가 학생들의 긍정적인 가치관 형성
- 도서관의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 및 독서 동기 유발
- 저자와의 대화를 통한 논리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 다양한 관점으로 현상을 관찰·사고할 수 있는 시야 확대
- 독서를 통한 자기 성찰 및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자기 주도적 인재 양성에 기여

사. 향후 발전 계획

1) 학생들의 호기심과 트렌드를 반영한 저자 섭외
2) 'Book새통' 진행 방식의 다양화 : 북 콘서트, 토론회 등

아. 자체평가

1) 사업 추진 결과 잘 된 점

- 대중매체를 통해 잘 알려진 김상욱 교수님을 초청하여 이론 물리학적 관점에서 우주와 세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관계에 대한 강연을 들음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과학은 어렵고 전문적이라는 편견을 가진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일상생활에서의 예를 들어주면서 강연을 진행하여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음
- 강의를 통해 저자와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좋았다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강연을 통해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 타인과의 연결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
- 강연 중간에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있어 참가자들이 강연을 딱딱해하지 않고 즐겁게 참여함
- 행사에 참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강연 주제와 행사 진행에 대해 매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2) 사업추진 상 예상 외 변수 등 문제점 및 애로 사항

- 학교 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강사료로는 유명 강사를 섭외하기 어려움
- 참석자가 많을 경우 자리 부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3. '밤샘독서'

가. 배 경

: 독서권장프로젝트 'Book돋음' 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독서 문화 증진과 이벤트를 통한 도서 이용률 증대

나. 목 적

1) 책과 함께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는 특별한 행사를 통해 학창시절 추억을 제공
2) 독서 후기를 작성함으로써 글쓰기 능력 및 논리적 의사 표현력 증진
3) 다양한 독서 행사로 도서관 이미지 제고

다. 필요성

: 도서관은 공부만 하는 곳 이라는 통념을 벗어나 이벤트 행사를 통해 이용자와의 거리를 좁혀 딱딱한 도서관의 이미지를 벗고, 자연스레 독서에 관심을 갖게 하여 도서 이용률 증대에 기여

라. 추진일정

<1차>

기간	내용
2019. 3. 27 ~ 5. 10	- 계획안 작성 및 일정 수립 - 배너 및 현수막 제작 - 행사장소 선정 - 해당부서 협조(난방, 경비, 의약품, 기타용품) - 독서 후기 심사 섭외 (송수연, 김경은)
2019. 5. 13 ~ 5. 22	- 비교과과정 프로그램을 통한 행사 참가자 접수
2019. 5. 20 ~ 5. 24	이벤트 행사 준비 - 현수막, 배너 설치 - 접수테이블, 그래피티 설치 - 간식 및 물품 구입
2019. 5. 24 ~ 5. 25	- 밤샘독서 행사 진행(참가자 : 160명) - 독서 후기 제출(참가자 : 56명)
2019. 5. 27 ~ 6. 7	- 독서 후기 심사
2019. 6. 13	- 독서 후기 수상자 발표 및 시상

<2차>

기간	내용
2019. 10. 7 ~ 11. 3	- 계획안 작성 및 일정 수립 - 배너 및 현수막 제작 - 행사장소 선정 - 해당부서 협조(난방, 경비, 의약품, 기타용품) - 독서 후기 심사 섭외 (송수연, 이설야)
2019. 11. 4 ~ 11. 13	- 비교과과정 프로그램을 통한 행사 참가자 접수
2019. 11. 11 ~ 11. 15	이벤트 행사 준비 - 현수막, 배너 설치 - 접수테이블, 그래피티 설치 - 간식 및 물품 구입
2019. 11. 15 ~ 11. 16	- 밤샘독서 행사 진행(참가자 : 190명) - 독서 후기 제출(참가자 : 44명)
2019. 11. 16 ~ 11. 22	- 독서 후기 심사
2019. 12. 05	- 독서 후기 수상자 발표 및 시상

마. 추진내용

1) 행사내용

- 야식타임, 그래피티, 인하사랑 배지찾기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추억 제공
- 독서 후기를 작성함으로써 글쓰기 능력 및 표현력 증진
- 행사참가자 우수 독서 정석학술정보관장 상장 및 시상금 수여

2) 밤샘독서 우수 독서 후기 시상

<1차>

- 일시 : 2019년 6월 13일(목)
-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
- 시상 내역

상 급	명 단	상 금
최우수상(1명)	공*원 (간호학과)	시상금 20만원
우수상(2명)	이*송 (철학과) 김*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시상금 15만원
장려상(5명)	박*형(철학과) 강*혜 (해양과학과) 정*희(전기공학과) 강*빈(아태물류학부) 유*지(행정학과)	시상금 10만원
가작(5명)	채*선(경제학과) 정*종(경영학과) 이*민(경영학과) 이*진(국어교육과) 한*훈(문화콘텐츠경영학과)	시상금 5만원

<2차>

- 일시 : 2019년 12월 5일(금)
- 장소 :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
- 시상 내역

상 급	명 단	상 금
최우수상(1명)	이*정(경영학)	시상금 20만원
우수상(2명)	이*수(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 오*비(행정학)	시상금 15만원
장려상(5명)	김*니(교육학) 김*은(경영학) 안*은(국어교육) 박*형(철학) 심*주(컴퓨터공학)	시상금 10만원
가작(5명)	박*민(철학) 강*혜(해양과학) 백*욱(생명공학) 서*우(철학) 이*영(국어교육)	시상금 5만원

바. 효 과

- 학창시절 추억 제공
- 도서관 이미지 제고를 통한 도서 이용률 증대
- 독서를 통한 전문지식 습득 및 정서순화로 건강한 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

사. 향후 발전 계획

- 1회성 행사가 아닌 매년 진행되는 행사를 위한 예산확보
- 강사를 초청하여 단순한 책읽기 행사를 벗어나 문학교류의 장 마련

아. 자체평가

1) 사업 추진 결과 잘된 점
   - 밤샘독서 행사 중 독서 후기, 인하사랑 배지 찾기, 장기자랑, 그래피티, OX퀴즈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됨
   - 행사에 참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1차 및 2차 평균 95% 이상의 학생이 행사 진행에 대하여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2) 사업추진 상 예상 외 변수 등 문제점 및 애로 사항
   - 지정된 도서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음
   - 음주 후 행사 참석자 제한
   - 늦은 시간 행사가 진행되어 이탈자에 대한 안전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행사에만 참여하고 독서후기를 제출하는 학생이 감소함
   - 수료증을 수령하지 않은 학생이 많음

Ⅲ 실적 및 기대성과

□ 실적 및 성과 : 투입 – 산출 – 성과 체계 / 주요 실적 / 기대성과

<table>
<tr><th rowspan="2">투입
(input)</th><th rowspan="2">산출
(output)</th><th colspan="2">성과(outcome)</th></tr>
<tr><th>중.단기성과</th><th>장기성과</th></tr>
<tr><td>'Book드림'
<1차>
- 참여 학생 : 40명
- 심사 교수 : 1명
- 진행 직원 : 1명</td><td>- 독서후기 접수 : 40건
- 우수작 시상 : 10명</td><td rowspan="6">- 독서에 대한 관심 및 독서량 증가
- 독서후기 공모에 따른 글쓰기 능력 및 논리적 의사표현력 향상
- 저자와의 소통을 통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배양
- 전통문화와 자연과 접하는 체험을 함으로써 정서적 순화에 기여
- 참여 학생들 간의 대화와 토론의 장을 조성해 줌으로써 비판적 사고력 배양
- 책과 함께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는 특별한 행사를 통해 학창시절 추억을 제공</td><td rowspan="6">- 전문성과 교양을 겸비한 글로벌스마트 인재 양성에 따른 대학 경쟁력 강화
- 평생학습시대를 대비한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독서 습관 형성
- 도서관의 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여, 역동적이고 친근한 이미지 제고
- 독서토론과 대화를 통한 민주 시민의 자질 향상
- 독서를 통한 전문지식 습득 및 정서순화로 건강한 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에 기여</td></tr>
<tr><td>'Book새통'
<1차>
- 도서 배부 : 200권
- 참여 학생 : 230명
- 강연자 : 1명
- 진행 직원 : 5명

<2차>
- 도서 배부 : -
- 참여 학생 : 300명
- 강연 작가 : 1명
- 진행 직원 : 5명</td><td>-</td></tr>
<tr><td></td><td></td></tr>
<tr><td>'밤샘독서'
<1차>
- 참여 학생 : 160명
- 심사 교수 : 2명
- 진행 직원 : 4명

<2차>
- 참여 학생 : 190명
- 심사 교수 : 2명
- 진행 직원 : 4명</td><td><1차>
- 독서후기 접수 : 56건
- 우수작 시상 : 13명

<2차>
- 독서후기 접수 : 44건
- 우수작 시상 : 13명</td></tr>
<tr><td></td><td></td></tr>
<tr><td></td><td></td></tr>
</table>

Ⅳ 향후 발전계획

□ 향후 발전계획

○ 교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 시행

○ 'Book돋움' 세부 프로그램의 특화된 성격 및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생 참여도 및 실적 증가

○ 학생들의 호기심과 트렌드를 반영한 저자 섭외 및 다양한 방식의 'Book새통' 진행

○ 성공적인 'Book새통' 행사 진행을 위해 유명강사 섭외

○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한국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문학기행으로 진행

V 행사 후기 및 수상작품 모음

1. 'Book드림' 심사후기 / 우수학생후기

1-1. 하계방학 독서후기 공모

가. 심사후기

'학교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책을 읽는다'-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가. 어쩌면 '밤샘독서'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쯤으로나 기억될, 혹은 기록의 저 구석에나 존재할 '대학생활의 낭만'을, 그 여유를 다시 호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양한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 낸 학생들의 글에서 느껴진 앎에 대한 두근거림, 순수한 기쁨, 작지만 반짝이는 열망들을 읽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동요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다양한 읽기, 새로운 시각, 깊이 있는 해석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고, 그 중 <숨결이 바람될 때>를 읽은 공주원 학생의 글을 최우수상으로 뽑았다. 전도유망한 젊은 의사가 폐암 진단을 받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써내려간 글을 묶은 이 책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삶의 아이러니를 포착한 공주원 학생의 시각이 돋보였다. 전공과,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 깊이 있는 읽기과 해석을 보여주어 주저없이 최우수상으로 뽑았다.
"삶은 여러모로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다. 우리는 자주 스러지고, 이따금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울 당위성조차 찾지 못해 허덕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이어질 것임을 안다. 악성 종양과 맞서 싸우던 폴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혹시 삶이 내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넘어져 일어서고 싶지 않다면, 잠시 멈춰서 천천히 이 책을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있다고, 너무 늦어버린 것은 없다고,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그러니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시 천천히 가던 길을 걸어보자고.

문학평론가 송수연

나. 우수학생 후기

1) 최우수상

가)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이*민 (김상욱의 과학공부)

1. 어렸을 적 다닌 수학학원의 선생님은 굉장한 수다쟁이였다. 2시간의 수업 중에 자그마치 절반을 수다 떠느라 날려버릴 정도였다. 덕분에 부모님께는 죄송하게도 내 성적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학원을 다니는 것을 싫어하진 않았다. 선생님과 나누는 모든 수다가 내게는 즐거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상은 종종 우주의 경계를 뛰어넘기도 했다. 넓은 우주의 어딘가에는 지구의 몇 배가 넘는 중력을 보유한 행성이 있을 것이다. 만약 인간이 그곳에서 1년만 거주한다면 슈퍼히어로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두꺼운 군함의 외벽쯤이야 주먹 한 방으로 구멍을 뚫는 것은 일도 아닐 것이다. 과학 이야기도 종종 나눴다. 소싯적 삼성전자에서 일하셨던 선생님은 반도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F=ma 같은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물론 나는 문과였기에 그의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지루한 적도 있었다. 과학이라면 질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내게도 흥미로운 것 하나쯤은 있었다. 바로 '오비탈'이다.

2. 오비탈이란 무엇인가.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자핵과 그 주위를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원자번호와 같은 수의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때 전자는 그 질량이 매우 작은 탓에 관측 행위만으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신 과학자들은 전자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수학적인 함수를 활용해 전자가 위치할 확률을 계산해낸다. 이 확률을 바로 '오비탈(전자구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오비탈의 원리에 의하면 전자는 이곳에도 존재할 수 있고, 저곳에도 존재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탈무드의 대목이 떠오르는 순간이다. 남편의 말도 옳고, 아내의 말도 옳다. 왜냐하면 그것은 확정성의 세계가 아니라 가능성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3. 그리고 시간이 흘렀다. 수학학원 선생님과 나눴던 수다의 재미를 우연히 마주친 한 권의 책에서 다시 찾았다. 그 책의 이름은 <김상욱의 과학공부>다. '알쓸신잡'을 통해 우리에게도 익숙한 김상욱 교수의 저서다. 물리학자답게 다양한 물리학의 원리를 우리 사회와 일상 속의 에피소드에 적용하여 섬세한 통찰과 감수성으로 풀어낸 에세이다. 아무래도 에세이인지라 다른 과학 서적에 비해 비교적 가벼워 읽기에 부담스럽지가 않다. 마치 이과생이 쓴 <개인주의자 선언> 같은 느낌이랄까. 이 책을 읽고 나서 든 첫 번째 생각은 인문학과 과학은 결국 그 본질이 같다는 것이었다. 인문학이 인간을 떠받친다면, 과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떠받친다. 인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에, 세상 속에 인간이 있기에 과학과 인문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우리가 문과니, 이과니 하며 서로의 경계를 농담 반, 진담 반 삼아 나누며 치기 어린 말들을 주고받는 와중에도 말이다.

4. 물리학 안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다. 천체물리학, 고체 물리학, 광학물리학, 핵물리학 등등. 그 중에서도 김상욱 교수의 주 분야는 양자물리학이다. 따라서 그의 책인 <김상욱의 과학공부>에서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는 건 양자물리학과 빛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렇다면 '양자물리학'이란 건 대관절 무엇일까. 아마도 오늘날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중에서도 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의 팬이라면 제법 익숙하지 않을까 싶다. 지난 4월에 개봉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주인공들이 시간여행을 위해

사용하는 이론이 바로 '양자역학(양자물리학)'이니까 말이다(만약 스포일러를 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개봉한지 벌써 4개월이 지났는걸). 양자물리학은 쉽게 말해서 분자, 원자, 전자, 소립자와 같은 미시적인 대상을 주로 다루는 현대 물리학의 분야다. 김상욱 교수에 따르면 양자물리학이 고전물리학과 구분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중첩의 원리'에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빛에 대한 오랜 논쟁이다. 19세기 영국의 과학자 토머스 영의 빛의 이중슬릿 실험에 의하면 빛은 파동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실험에 의하면 빛은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 오랜 논쟁의 끝은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결론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 중첩의 원리는 앞서 말한 오비탈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오비탈의 원리에 의하면 전자는 이곳에도, 저곳에도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슈뢰딩거가 말했듯 상자를 열어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한다면 그 중첩의 상태는 깨질 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세계에서는 상자를 여는 행위 자체, 그러니까 관찰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관측행위 자체가 전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당신은 우연히 나간 소개팅 자리에서 한 여자를 만났고, 몇 년 후 그녀와 결혼하게 되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소개팅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녀와 결혼하지 못할 운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양자물리학에 따르면 그 대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정확하게 단언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다른 경우의 수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확률로써 애매모호하게 대답할 뿐이다, 중첩의 애매모호함은 내 마음 속에 깊은 자국을 남겼다. 내가 이 단어에서 발견한 건 '공존'이다. 그리고 그건 내 머릿속에서 지난 기억 하나를 끄집어내었다.

5. 내가 의무소방원으로 일할 때였다. 허리가 아프다는 환자의 신고였다. 현장에 도착하니 할머니 한 분이 우리를 맞이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 있던 그녀는 우리를 보고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허리가 아파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처방 받은 약이 도통 듣지를 않는단다. 다른 가족들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남편과는 진즉에 사별했고, 두 딸은 타지에서 살고 있단다. 일단 우리는 간단하게 혈압과 산소포화도 같은 것들을 체크했다. 수치는 모두 정상이었다. 할머니, 일단 병원으로 가시게요. 반장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들것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왔다. 할머니는 우리와 들것을 번갈아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떼셨다.

"저기, 병원에 가려면 지갑을 챙겨야 할까?"

그녀의 물음에 머리가 멍해졌다. 당연한 소리를..... 왜?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병원비가 얼마나 들까?"
"지금 외래환자 진료소는 문을 다 닫아서 응급실로 가셔야 되요, 할머니. 아마 응급실 진료비가 따로 청구될 거예요."

할머니는 두 눈을 깜빡거리더니 침대 밑을 뒤져 주먹만한 크기의 주머니를 꺼내보였다. 그 안에서 그녀는 만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이거면 충분할까?' 그녀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라..... 마치 변명하듯이 뒷말이 따라 나왔다.

6. 할머니는 결국 병원에 가지 않았다.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이송을 거부'한 셈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상태가 호전되어서가 아니다. '돈'이 없어서다. 할머니는 어떻게든 참아보고 외래진료소가 문을 여는 다음날 아침에 병원을 가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그녀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만약 상태가 심해지면 참지 말고 꼭 119를 부르시라는 당부 밖에 없었다. 아마도 그녀는 동아줄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우리를 찾았을 것이다. 통증에 듣는 약이라도 처방해줄 줄 알았던 모양이다. 아시다시피 119는 돈을 받지 않으니깐. 하지만 우리에겐 그녀에게 처방해줄 수 있는 약이 없었다. 그녀는 괜한 헛걸음을 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환자 대신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소방서로 돌아왔다. 그 날 나는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막대한 수술비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TV에서도 종종 보았지만, 응급실 진료비조차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것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말이다. 우리가 환자들을 실어 나르던 병원의 입구에는 '응급실대불제도'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게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의료급여가 무엇인지, 문재인케어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내 관심의 영역이 아니었다. 하지만 내가 나와는 상관없다며 관심을 두지 않던 것들이 다른 이에겐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7. 지난 7월 강원도의 시골길에서 봉고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묘했던 건 16명의 탑승자 중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사람은 13명뿐이라는 사실이다. 알고 보니 사라진 3명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망치듯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들이 외국인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이다. 여론은 둘로 갈렸다. 잡히는 게 두려워 아픈 몸을 이끌고 도망쳐야 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시키자는 쪽과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무슨 관용이냐는 쪽으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다. 서로의 입장을 말하는 양쪽 다 옳기 때문이다. 인권을 옹호하는 쪽은 그들이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에 옳다.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쪽은 그들이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옳다. 페미니즘도 마찬가지다.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쪽이나, 그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나 둘 다 옳다.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자신의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썼듯이 정치란 결국 선의의 싸움이니까 말이다. 따라서 이 문제들을 제로섬 게임에만 입각해서 바라보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우리에겐 양자역학이 그렇듯 '중첩의 원리'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꼭 다른 문제의 방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혹은 내가 옳다고 해서 타인의 견해를, 상황을 옳지 않다고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옳지 못한 건 경계선을 긋는 행위 자체다. 다양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양자물리학의 시작이자 타인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본 원리다.

8. 따라서 모든 형태의 타자화는 경계되어야 한다. 물론 레비스트로스가 말했듯 이항대립은 주체가 세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편리함이 곧 이로움의 동의어는 아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았었나. 홀로코스트라는 이름으로 타자화가 극에 달하면 어떤 비극을 불러올 수 있는 지를. 비약 아니냐고? 이상주의자의 헛된 공상이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타자화'는 공존하지 않겠다는 선언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나긴 글의 마지막 문장을, 나는 '마르틴 니묄러'의 시로 장식하려 한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유대인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 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줄 이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

2) 우수상

가) 국어교육학과 김*진 (김상욱의 과학공부)

Ⅰ. 들어가며 - 습관적 "문송합니다."의 최후

본서는 "과학과 인문학은 과연 교양 앞에 평등한가?"라는 질문을 독자에게 던지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교육학 전공자인 나는 상기한 질문을 읽고 지난 20년 동안 펼쳐졌던 공교육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1999년 이해찬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당시의 대입 슬로건은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였다. 뚜렷이 드러나는 한 가지의 장점이 있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 입시의 목표이자 공교육의 목표가 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슬로건은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는 세월 동안 정확히 정반대로 변화하였다. '통합형 융합 인재'가 각광을 받는 시기가 온 것이다. 이공계열의 학생 또한 인문계열의 소양을 갖춰야 하고, 인문계열의 학생 역시 이공계열의 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교육계열에서 눈에 띄는 격정적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책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필자는 글을 시작하며 "과연 과학과 인문학은 과연 교양 앞에서 평등한 위치인가."를 질문한다. 요컨대 셰익스피어를 모르는 것은 부끄러이 여기지만 열역학 제2 법칙을 모르는 것은 당연시하는 세태에 대하여 작가는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다. 작가는 사회가 이공계열의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동시에 갖춘 인재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모순적이게도 이 둘에게 평등한 시선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질문은 게으른 인문학 전공자인 나에게 색다른 부끄러움을 안겨주었다. 나는 루카치와 카프카에 관해 이야기하며 한껏 잘난 척을 하면서도, 전압이나 전류 같은 이야기를 할 때는 습관적으로 "문송합니다. (문과여서 죄송합니다)"를 외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책의 도입부가 내던지는 화두는 마치 나를 '저격'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와 닿게 다가왔다. 요컨대 교양이라는 관점에서 과학과 인문학은 평등하지 않았고,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과학을 교양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선 평등해야 한다. 과학 역시 하나의 '교양'인 것이다.

Ⅱ. "악의는 없었어요."의 무책임에 대하여

인문계열 전공 학생이라면, 학부를 거치며 한 번쯤은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에 대하여 공부

하게 된다. 요컨대 홀로코스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른 이들이 이동기, "아렌트는 아이히만에 속았다.", 한겨레, 2015.01.27.
"파괴적 이념과 반인간적 정치에 물든 악마적 인간이 아니라 다만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르며 관료제적 타성과 인습적 관례를 따른 '명령수행자' 내지 '거대한 기계의 한 톱니바퀴'에 불과했다."는 것이 한나 아렌트의 핵심 주장이다.

그런데 과연 '악의가 없음'은 정말로 악의의 부재일뿐인 것일까? 악의 없이 행해진 행위는 그저 악의가 없었음에 마무리 지어질 수 있는 것일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상기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악의가 없음'은 단순한 '악의의 부재'를 넘어서 하나의 실체가 된다. 요컨대 행위에 내재된 '악의의 부재'는 하나의 불의로서 실체가 된다.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는 여기서부터 촉발된다. 예컨대, 누군가가 악의 없이 내뱉은 약자를 향한 혐오발언은 그 자체로 실재하는 혐오가 되어 약자에게 실질적인 위협이자 상처가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인문학적 논의와 관련된 과학적인 시선을 제시한다. '부재는 곧 실체'라는 인문학적인 담론을 과학적으로도 해석하고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물속에서 생겨난 거품은 공기로 인한 물의 부재이다. 그런데 이 물의 부재로 만들어진 거품은 이제 그 자체로 존재가 되어 마치 실재인 듯 물속을 움직이고 다닌다. 한 걸음 더 나아가 193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폴 디랙은 부재하는 '입자'에 대한 개념을 발견해낸다.

폴 디랙의 이론에 따르면, 진공에 충분한 에너지를 주면 전자가 튕겨나갈 것이고, 그 빈자리가 마치 물속의 거품처럼 보이게 된다고 한다. 그러고는 이 거품에 '양전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 전자와 양전자라는 두 개의 입자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양전자와 같은 부재의 입자를 '반입자'라고 한다. 그리고 1932년 칼 데이비드 앤더슨이 우주선에서 디랙이 말한 바로 그 양전자를 발견하게 된다. 디랙이 옳았던 것이 다. 앤더슨은 이 업적으로 193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는다. 물속의 공기방울처럼, 또 양전하의 개념처럼 부재는 그 자체로 실체인 것이다.

불의(不義)는 말 그대로 의가 없는 것이다. 잘못된 일을 보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가 없는 상태인 불의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렇게 생겨난 '의의 부재'는 실체가 되어서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이는 현재 홍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투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홍콩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중국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수많은 악의의 부재와 의의 부재는 독재와 억압의 실체가 되었다.

악의 평범성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보자. 나치의 만행에 일조한 이들 중 일부는 악의 없는 자들임이 밝혀졌다. 홍콩의 시위자의 눈을 멀게 한 이에게도 그만큼의 악의는 없었을 것이다. 무책임의 소치는 얼마나 큰가. 부재는 실체하는 것이다.

Ⅲ. 국정화 교과서와 노벨상

한국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것과, 국정화 역사 교과서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필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관통하는 연결고리로 '자유로운 생각'을 들었다.

지동설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것을 지지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하는 일이었다. 마르틴 루터는 코페르니쿠스를 가리켜 "이 바보가 천문학이라는 과학을 통째로 뒤엎어놓으려 한다. 그러나 성서에 분명히 쓰여 있듯이 여호와가 멈추라고 명한 것은 태양이지 지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동설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는 오로지 성경책에 쓰인 한 구절의 권위 때문이었던 것이다. 작가는 과학은 이런 환경에서 숨 쉴 수 없다고 말한다. 과학적 사고의 핵심이란 모든 것을 의심하고,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증거에만 의존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원래부터 옳은 것'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부터 과학적 사고는 시작한다는 것이 아닐까.

2015년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단행했다.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나치 역시 올바를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책을 불태웠고 제국주의 일본도 올바를 동아시아 건설을 위해 전쟁을 일으켰다. 과학과 마찬가지로, 역사 속에서도 원래부터 옳은 것이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진 일들이다.

과학에서 올바른 답은 많은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각으로부터 얻어진다. 만약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정부에서 정하는 거라면, 우리는 지금도 천동설을 믿는 것이 타당하다. 필자는 이처럼 무엇인 옳은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국가에서 정함으로서 학자나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거세하는 것이 노벨상에서 멀어지는 요인이자, 국정화 교과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IV. 마치며 - 평등에도, 사랑에도, 과학!

약 700만에서 500만년 이전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인류는 여전히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지극히도 당연한 원칙을 실현해내지 못했다. 필자는 모든 인간이 평등한 이유를 들며 진화론을 언급한다. 현재의 모든 생명체는 똑같이 35억년을 진화해서 성공적으로 성공한 동료들이다. 또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과학적은 평등에 관한 수많은 이유를 들지만, 차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지 못한다.

또한 작가는 우주론적인 이유를 들어 비과학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랑에 대한 근거 역시 제시한다. 생명체는 지구에서만 발견되는 아주 특별한 물질이다. 내 주위에 생명체가 있다면 이것은 우주론적 관점에서 놀라운 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그 수많은 생명 중에서 나와 같은 종을 만나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다른 인간을 사랑해야만 하는 우주론적 이유이다. 이처럼 과학은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관념인 사랑과 평등에 대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인상적인 부분이다.

앞서 상기했듯, 우리는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는 국가와 시대 속에서 살고 있다. 이는 좁게는 인문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동시적으로 함양하는 인재를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인재상의 모습에서 나아가, 차가운 머리에 따뜻한 가슴을 품은 한 명의 인간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2. ‘밤샘독서’ 심사후기 / 우수학생후기

2-1. 1차 밤샘독서

가. 심사후기

‘학교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책을 읽는다’-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가. 어쩌면 ‘밤샘독서’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쯤으로나 기억될, 혹은 기록의 저 구석에나 존재할 ‘대학생활의 낭만’을, 그 여유를 다시 호출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양한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 낸 학생들의 글에서 느껴진 앎에 대한 두근거림, 순수한 기쁨, 작지만 반짝이는 열망들을 읽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동요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다양한 읽기, 새로운 시각, 깊이 있는 해석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고, 그 중 <숨결이 바람될 때>를 읽은 공주원 학생의 글을 최우수상으로 뽑았다. 전도유망한 젊은 의사가 폐암 진단을 받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써내려간 글을 묶은 이 책을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삶의 아이러니를 포착한 공주원 학생의 시각이 돋보였다. 전공과, 자신의 경험과 관련해 깊이 있는 읽기과 해석을 보여주어 주저없이 최우수상으로 뽑았다.
“삶은 여러모로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다. 우리는 자주 스러지고, 이따금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울 당위성조차 찾지 못해 허덕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이어질 것임을 안다. 악성 종양과 맞서 싸우던 폴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혹시 삶이 내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노력하는 것을 멈추고 싶다면, 넘어져 일어서고 싶지 않다면, 잠시 멈춰서 천천히 이 책을 읽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있다고, 너무 늦어버린 것은 없다고,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그러니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시 천천히 가던 길을 걸어보자고.

문학평론가 송수연

원하는 책을 읽는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무엇에도 쫓기지 않고, 어떤 의무감도 없이 읽을 수 있다면 그 즐거움이 더하겠지요. 정석도서관의 밤샘독서는 그렇게 무용한 독서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입니다. 좋은 글을 써내지 않는다해도 괜찮습니다. 평가받고 순서대로 점수를 매겨 등수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읽고, 가벼운 마음으로 쓸 수 있습니다.
혼자서 혹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주는 작지만 깊은 기쁨을 학생들의 글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설부터 인문, 경제, 과학, 그리고 실용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을 읽고 써낸 학생들의 글은 선택한 책만큼이나 다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깊이 있는 독서를 한 공주원 학생의 글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가능한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읽어낸 이유송 학생의 글, <맹자>를 지금 이곳의 시각으로 읽어낸 김민준 학생의 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독서가 아니라 나와 내 삶에서 이끌어낸 사유를 통해 깊고 적극적인 독서를 한 결과물들이어서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후기에 남긴 것처럼 앞으로도 도서관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책과 추억을 선물하는 공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동문학가 김경은

나. 우수학생후기

가) 간호학과 공*원 (숨결이 바람 될 때)

스물 네 해 정도 살다 보면 다음과 같은 일을 맞닥뜨리게 된다. 무료한 연애. 불결한 여행지. 어느 화창한 오후의 휴대폰 분실 사고. 토익 시험 전날 독감 발병. 감당할 수 없는 누군가-혹은 나 자신-의 무능. 친구의 친구의 친구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소생 가능성 없는 실패자가 되어 본 경험. 한 번도 원한 적 없었고 누구라도 예상치 못했을 그 모든 불쾌한 불운. 아무런 개연성 없이 우리의 생을 비집고 들어오는, 염치없는 모순들.

반면 우리에겐 그런 순간도 있었다. 졸면서 풀었는데 찍은 대로 다 맞은 시험. 지하철 안에서 보란 듯이 내 앞에 빈자리가 생기는 순간. 대가 없는 친절. 호의 어린 배려. 느닷없는 성공의 발생. 어떤 비열한 누군가로 인해 더 강해진 기억. 상처의 유용성. 어떤 앎으로 인해 삶이 선물로 변하는 순간들. 느닷없는 행운이 발치에 놓여 있었던 여러 날들.

전자와 후자의 경우 모두에서 우리는 일종의 불가항력을 경험하게 된다. 삶이 여러 모순을 산발적으로 던져 줄 때,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도 극복할 수도 떨쳐버릴 수도 없는 입장이 된다. 그야말로 각자가 완전한 목적어의 자리(이 책에서는 '직접 목적어'라고 표현한 바 있다)에 놓이는 것이다. 어떤 주체적인 힘도 행사할 수 없는, 철저한 대상이자 수단의 자리 말이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문제에 관해서는 침통할 정도로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테면 질병 같은. 책의 저자인 폴 칼라니티는 폐암으로 인해 사망한다.

책의 부제는 '서른여섯 젊은 의사의 마지막 순간'이다. '젊고 전도유망한 신경외과 레지던트였던 폴이 폐암을 진단 받고 작성한 마지막 일기이다.' 삶의 잔인함을 단 한 문장에 집약할 수 있다면 나는 방금 썼던 문장을 쓰겠다. 젊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건실하고 풍부한 내면. 성공. 부와 명예를 거머쥐기 직전의 상태.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 이 모든 것들은 폴이 한 때 지녔던 것들이자, 악성 종양을 진단받는 동시에 아주 가파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기도 하다. 이만큼 아이러니한 것이 있을까. 어째서 삶은 폴이 정점에 올랐을 때, 보시다시피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일 때에 보란 듯이 폐암 따위를 던져 둘 수 있을까? 폴이 담당 환자 뇌의 악성 종양을 볼 때 느꼈던 심경과 같은 종류의 것(이글대는 분노)를 느꼈다. 삶의 모순을 이보다 절실히 드러낸 서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서사를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인 폴 칼라니티의 내부를 공유하고 싶었다. 그가 두고 간 이야기를 읽고, 존중하고, 애도하기 위해서였다.

책은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장은 폴의 외과의사 숙련기였다. 스무 살까지도 폴은 의사가 될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오히려 문학과 철학에 심취해 있던 청년이자 삶의 정수를 갈망하던 이상주의자였다. 그러나 공부를 거듭하면 할수록 한계를 느꼈고, 자신이 갈구하던 것을 의학에서 찾을 수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특히 신경외과 의사로서 삶과 죽음의 문턱에 있는 교류자이자 인간의 실존에 맞닿을 수 있는 치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 이후 폴은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해 신경외과의 최고참 레지던트로 살아가며 마주친 환자들의 이야기,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으로서의 통찰과 고뇌에 관해 서술한다. 폴은 인문학적 사유와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조화롭게 습득한 지식인이었다. 동시에 끊임없는 노력과 삶에 대한 치열한 성찰로 몹시 견고한 내면을 쌓아 올린 사람이었다.

두 번째 장에 이르러서야 폴의 투병기가 나온다. 나는 첫 장이 두 번째 장과 동일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책의 절반이나 할애 할 만큼 신경외과의라는 직업에 대한 애정이 몹시 컸던 모양이었다. 나는 간호학을 전공하고 있다. 실습 도중 많은 환자들과 마주쳤고,

죽음을 목전에 둔 그들의 태도를 짧게나마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다. 병명을 부여 받은 인간은 자신의 실존과 직면한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들을 톺아보게 된다. 내가 본 환자들의 경우에는 보통 관계에 많은 가중치를 두었다. 대체로 가족, 사랑, 친구 같은 존재들.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그들이 떠안을 심리적·경제적 부담감을 걱정하기도 했다. 폴은 좀 달랐던 것 같다. 물론 그의 아내 루시와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긴 하지만,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자신의 직업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책에서 폴은 '직업이 아닌 천직'이라고 반복해 서술한다. 폴은 신경외과의라는 자신의 직업에서 존재 자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의미를 발견했다. 투병 중간에도 다시 멸균 가운을 입고 수술을 진행할 정도였다.

하지만 수술용 드릴을 다시 잡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했다. 도덕적인 의무에는 무게가 있고, 무게를 가진 것은 중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생사가 걸린 막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가 나를 다시 수술실로 끌어당겼다.

그의 열정이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고, 그 일을 사랑했다. 거기에 일관되게 최선을 다했고 동시에 인정까지 받았다. 이것은 행복한 노동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나는 앞으로 내가 하려는 일에 대해 어느 정도 몰입할 수 있을까. 간호사가 되려는 나에 대해 더욱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
두 번째 장에서 폴은 환자의 입장이 된다. 의시이자, 주체이자, 치료자인 첫 장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이제 한없이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가 된다. 하지만 폴은 슬퍼할지언정 지나치게 호소하지 않는다. 그가 죽음에 대한 불만을 서술하는 분량은 결코 많지 않다. 아마도 그가 죽음의 최전방에서 일했던 경험 때문일 것이다. 그는 "왜 하필 나야?"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나라고 암에 걸리지 말란 법이 있는가?")을 오래 전 준비해 둔 상태였다. 자신의 죽음을 직시하는 훈련을 이미 몇 해 전부터 간접적으로-자신도 모르는 사이-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동일하고 공정한 절차임을, 그는 자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앎이 언제나 이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폴은 충분히 알았다. 카플란 마이어 생존 곡선과 EGFR 변이, 서른여섯 살에 폐암에 걸릴 확률이 0.0012퍼센트라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다. 자신의 신체를 찍은 CT영상을 판독할 수도 있었으며 암환자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 통증과 체중 감소와 실낱같은 희망,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확률로 존재하는 죽음의 가능성에 대해 그는 전문가였다. 그러나 앎은 이해와는 별개의 영역이다. 죽음을 충분히 공부한 것과, 단 한 번이라도 거기 뛰어 들어 온 몸으로 투쟁한 것과는 다른 문제다. 다양한 묘사를 통해 통증의 양상을 상상하는 것과 장기 깊숙이 신경을 타고 전달되는 통증을 견디기 위해 이를 악무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인 것처럼. 마침내 폴은 호소한다.

"(...) 하느님, 제게 이렇게 핵폭탄급 시련을 주실 필요는 없었을 텐데요....." 이렇게 협상을 하다가 분노가 치밀었다. "평생을 바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암을 주십니까?"

그 대목에서 그간 마주쳤던 수많은 환자들의 표정이 겹쳐 보였다. 예기치 않은 불운을 만난 사람 특유의 얼굴을, 삶이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분노했던 나의 얼굴을 봤다. 각자의 삶에는 모두 그런 식의 지점이 존재한다. 삶의 홀대를 맞닥뜨리는 지점.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극한으로 치닫게 하고, 달리 도망칠 수 없게끔 속박해 놓는 지점. 신이라는 작자에게 따져 묻지 않고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지점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

다. 우리는 우리 몫의 삶을 마저 살아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실습 전만 해도 나는 대부분의 불치병 환자들이 열렬히 살고 싶어 한다고 믿었다. 모두가 열심히 치료를 받고 혼신의 힘을 다해 약물의 부작용을 견딜 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다. 그들이 죽음과 동시에 직면하는 것은 모르핀으로도 완화되지 않는 통증, 가족들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할 정도로 존엄성이 상실된 상태다.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면서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내가 지구상의 칠십 억 인구 중 하나이며 생태계를 잠깐 스쳐간 호모 사피엔스일 뿐이라면? 내가 없어도 세계의 작동과 진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나의 생존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유의미한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면? 그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을 모두 내려놓은 뒤, 자신의 생을 지탱해 줄 끈질긴 정체성을 찾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살아야 하는 이유, 용기와 희망을 공급해 줄 새로운 장치를 찾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종교에 귀의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폴 역시 생존의 의미를 찾기 위해 끈질긴 탐색을 시작한다.

신경외과의를 겸한 신경과학자로 가장 높이 날아오르려던 욕심을 버린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뭘까? 아버지가 되는 것? 신경외과의가 되는 것? 후학을 가르치는 것?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 그리고 나는 새로운 정체성이 필요하리라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다.

폴의 병세는 악화되고, 안간힘을 쓰며 버티던 수술조차 진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 그토록 바라던 레지던트 수료식에도 참석하지 못한다. 폴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정체성,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믿으며 실제로도 그랬던 저명한 외과의로서의 모습은 천천히 소멸되어 간다.
그러나 둘은 아이를 갖고 싶다고 염원했던 마음을 실현시키기로 했고, 일찍이 인공수정을 시도한 바 있었다. 마침내 딸 케이디가 태어난다. 폴에게 케이디는 새로운 생명력으로 작용한다. '아버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인 것이다. 폴의 이야기는 케이디에게 남기는 이 말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린다. 투병 생활 막바지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네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아줬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

폴이 마지막에 딸을 낳고, 아이로 인해 마지막 순간을 유의미하게 보낸 것에 마음이 놓였다. 그건 여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내가 폴이었대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폴이었대도, 이 책을 딸 케이디에게 바쳤을 것이다.
폴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가족의 삶을, 나의 삶을 읽을 수 있었다. 삶은 여러모로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다. 우리는 자주 스러지고, 이따금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울 당위성조차 찾지 못해 허덕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이어질 것임을 안다. 악성 종양과 맞서 싸우던 폴이 그렇게 믿었던 것처럼. 그의 결연한 문장을 끝으로 지난밤의 소중한 독서를 마치고자 한다.

그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수술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왜냐고? 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나니까.

그리고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순회 방문객과도 같지만, 설사 내가 죽어가고 있더라도 실제로 죽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살아 있다.

2-2. 2차 밤샘독서

가. 심사후기

해를 거듭하면서 정석학술정보관의 '밤샘독서'가 학생들에게 책과 도서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이번에도 많은 학생들이 밤샘독서에 참여해 친구들과 함께 책을 읽고, 여러 체험들을 했다.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이 입을 모아 도서관은 늘 조용히 해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쩐지 부담스럽기만한 했는데 이번 '밤샘독서'를 통해 도서관이 이렇게 재미있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사람에게 '공간'은 아주 중요하다. 공간은 그 사람을 만들고 자라게 하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공기가 사라진 후에야 공기의 중요함을 알 듯, 공간 역시 빼앗기거나, 주어지지 않았을 때 그 가치를 드러낸다. 내 몸 하나 누일 곳 없어 고시원이나 쪽방을 전전하는 청춘들이나, 여전히 제대로 된 휴게공간이 없는 청소노동자들의 현실은 공간을 둘러싼 권력 관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런 의미에서 도서관이 숨막히는 고요와 긴장의 옷을 벗고 웃음과 활기, 재미와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하는 '밤샘독서'는 귀하다. 학생들의 후기에서 공간의 전이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전이(轉移)가 책 읽기의 성격을 바꾸었다는 것이 '밤샘독서'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다. 학습이나 취업과 같은 목적적 독서가 아닌, 재미와 자기만족을 위한 비목적 혹은 무목적적 독서가 주는 즐거움이야말로 진정한 책읽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정석학술정보관의 '밤샘독서'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무목적적 독서의 즐거움과 가치를 전파할 수 있게되기를 바란다.

문학평론가 송수연

나. 우수학생후기

1) 최우수상

가) 경영학과 이*정 (나목-도둑 맞은 가난)

계속하여 올, 소년에 대하여

주인공은 인형 옷 만드는 일을 한다. 조그마한 옷을 한없이 박음질하다 보면 마치 자신이 꼬마 나라에서 옷 짓는 노예가 된 것 같다면서도, 재봉틀질을 배워 일류 양장점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공상을 펼친다. 이런 모습은 꼭 일주일에 서너 번 아르바이트를 하는 나와 내 친구들 같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시키는 대로 어서 오세요, 친절한 웃음, 다음에 또 오세요. 하는 매뉴얼 따위를 지키게 한다. 그 큰 가게에 나 같은 또래 애들이 돈을 벌러 구름같이 몰려든다. 그마저도 자리가 부족해서 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줄을 섰다. 그런 우리네의 8,350원짜리 시간이 얼기설기 모여서 가게가 꾸려진다. 햄버거 나라에 고용된 노예들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언제까지나 햄버거집 계산대를 지킬 마음은 없다. 세탁소 냄새나는 옷을 입고

저기 종로에 있는, 고개를 등까지 젖혀야만 그 위가 올려다보이는 회사에 가서 일할 거다. 아니면 한 2년간 매일 도서관에 나와서 컴퓨터 너머로 만난 선생님에게 희망 가득한 진로 얘기 같은 걸 듣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거다. 하는 '장밋빛' 미래를 꿈꾼다. 회사 또는 나라의 직원이 되어 시간당 만 원을 웃도는 돈을 받게 되는 꿈을 꾼단 말이다.

내가 사는 세상이 그런 부속 같은 삶을 '성공한 취직' 비슷한 것으로 불러댔기 때문에 나와 친구들 심지어 부모님마저도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며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마저도 못하면 그건 낙오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남들 다 하고 사는 것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낳아도 가난을 대물림하는 무책임한 부모라고 손가락질받기 일쑤다. 그래봤자 이 넓은 땅에서 자기 집 하나 없이 사는 것은 다를 바가 없지만 평범한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급을 나누곤 한다. 그러니 우리 청춘들이 자본가에게 필요한 부품을 자청하게 되는 건 그야말로 정해진 수순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저냥 사는 와중에, 연예인 사업으로 수백억대 자산가가 된 사장님이 텔레비전에 나와 자기의 돈과 젊음을 바꾸자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바꾸겠다. 하는 말을 들으면 부자가 되어도 별거 없는 모양이다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여기며 햄버거 가게에 출근하곤 한다. 주인공이 국에 떠 있는 멸치가 눈뜨고 죽은 것을 보고 도미나 대구 같은 점잖은 고급 생선도 눈뜨고 죽는다는 사실을 기어이 생선가게 앞에 가서 확인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네들의 삶이 정말 별거 없을지 어떤지는 몰라도 이 세상에서 자명한 사실은 부자는 자꾸만 부자가 되고 우리네는 자꾸만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책에서는 주인공 집안의 몰락 과정을 통해 이를 이야기하고 있다. 아버지의 평범한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어머니는 자신의 살림이 더 나아지길 바라며 부자 친구에게 돈을 빌린다. 그저 사모님이라 불리고 싶어서 돈을 꿔 졸속으로 사업을 하려니 금방 망하고 마는 것은 당연하다. 기품 있는 부자 친구는 눈썹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것을 털어가면서도 어머니에게 고생을 해도 싸다고 말한다.

부자는 정말 평범한 우리네가 고생해 싸다고 생각하면서, 더 지을 수도 없는 집을 자꾸만 사 모으고, 자식들을 편법으로 명문 대학에 입학시키며, 그토록 인색하게 구는 걸까? 그들이 가진 부동산의 가격이 자꾸만 올라서, 부모의 좋은 학벌과 직업이 자꾸만 세습되어서, 그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게 부자가 된다. 아마 어머니의 부자 친구도 주인공네 살던 집을 빼앗아서 더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주인공이 개탄스러워한 것은 그런 부자들이 염치도 없이 가난이라는 소명까지도 탐낸다는 점이다. 주인공은 상훈이라는 남자를 좋아했지만,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라 둘러대며 둘의 살림을 합친다. 그러던 어느 날, 상훈이 한동안 집을 나갔다가 멀끔한 옷에, 대학 배지에, 두꺼운 책을 들고 다시 나타난다. 그는 사실 돈 귀한 줄을 좀 알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위장 잠입한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것이다. 상훈은 연탄 몇 장 아끼겠다고 생판 남인 남자와 한 이불 덮고 자는 딱한 여자애를 데려다 집에서 잔심부름이라도 시키고자 한다. 그 말을 들은 주인공은 악다구니 치며 상훈을 쫓아내고 얼마나 떳떳하고 용감하게 가난을 지켜냈는지를 스스로 뽐내며 방으로 들어온다. 그러고서 깨달았다. 그 방에는 이미 가난조차 없다는 것을. 상훈이 자신의 가난을 훔쳐 갔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던 부자들의 탐욕이 자신의 가난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이런 경우를 나는 얼마 전에도 봤다. 한 예능에서 연예인 부부가 수입이 적다며 하루에 만원만 쓰자고 제안한다. 그들은 고급 승용차를 두고 시내버스를 타고, 대학 식당으로 가, 벌벌 떨며 한 끼를 먹는다. 이 방송은 누구에게 공감을 얻고 싶었던 걸까? 비용을 아끼고 아껴 결혼한 신혼부부, 밥 한 끼를 위해 한 시간을 일해야 하는 대학생, 허리띠 졸라매던 젊은 시절을 떠올리는 중장년층, 그 누구도 그들의 가짜 가난을 반겨줄 수 없다. 그들은 이름난 연예인이 된 이후로 우리처럼 살지 않았을 테니까. 갓 결혼한 그들의 번듯한 아파트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우리의 가난을 훔쳐다가 얼마나 더 큰 인기를 얻고 싶었는지 나는 알 수 없다.

심지어 이런 소재는 드라마에서 더 흔하다. 회장님 아들이 자신의 출신을 비밀로 한 채 신입으로

입사해 가난한 여주인공과 사랑에 빠지지만, 여주인공이 그 비밀을 알아채고 당차게 부자 남자친구의 도움을 거절한다는 이야기는 오늘도 어떤 아침 드라마에서 본 것만 같다. 거의 모든 드라마에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만큼 열광해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팍팍한 자신의 삶에 누군가 기적처럼 손을 내밀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다만 일상에서 심심치 않게 자본에 굴복하고 말 뿐이다. 드라마에는 자신의 가난을 자랑스럽게 지켜낸 여주인공이 있다. 사람들은 주인공이 없이 살면서도 그토록 희망차고, 힘들 때 기꺼이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있으며, 그 도움을 거절할 만큼 자신의 보잘것없는 삶에 애착을 느끼는 주인공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는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드라마는 가난을 조롱하는 면도 있다. 생활은 빈곤해도 밝고 착하게 살면 복이 올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돈을 밝히지 않아야만 부자와 사랑에 빠지게 될 거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은 돈을 밝히지 말고 마음씨를 곱게 써야만 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든다. 사실은 누구보다도 돈이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사는 게 힘든데도 말이다.

"가난한 계집을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가난 그 자체를 희롱하는 건 용서할 수 없다. 더군다나 내 가난은 그게 어떤 가난이라고. 내 가난은 나에게 있어서 소명이다."

가난의 냄새를 버티지 못한 가족들이 모두 죽고 혼자 남은 주인공은 꾸역꾸역 돈을 모으고, 사랑을 하며 살아간다. 그들이 죽기를 무릅쓰고 거부한 가난을 주인공은 친근하게 동반하며 살아간다. 그러니 주인공은 떠맡겨진 가난을 이고 가는 자신이 대견스러웠을 것이다. 상훈이 집에 돌아오고, 자신의 그런 가난을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주인공은 엄청난 절망을 느꼈다. 집 하나에 슬레이트를 쳐 만든 여섯 개의 셋방 가운데 하나에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키워나갔던 주인공은 순간 자신이 일군 살림, 그 모든 것이 황폐하다 느끼며 글은 막을 내린다.

추측건대 가난마저 잃은 주인공은 아마 자신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삶을 포기하고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이것은 비단 가난한 사람만의 결말이 아니다. 부자건 가난뱅이건 신변 비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종종 뉴스에서 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속의 그 어떤 희망 같은 걸 자주 갈고 닦는 것이다.

주인공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말이다.

모두들 자신의 삶에 애착을 느끼며 자꾸만 돌보면 좋겠다.

자신의 유일한 자존감을 도둑맞지 않게 말이다.

[부 록]

◇ 2019학년도 예산현황 ◇

(단위 : 원)

<table>
<tr><th rowspan="2">프로그램명</th><th colspan="2" rowspan="2">세부내용</th><th colspan="2">예 산</th></tr>
<tr><th>항목별 금액</th><th>소 계</th></tr>
<tr><td rowspan="2">'Book드림'</td><td rowspan="2">1차</td><td>1. 독서후기 공모작 심사
: 1명 * 1회 * 200,000원</td><td>200,000</td><td rowspan="2">800,000</td></tr>
<tr><td>2. 독서후기 수상자 시상금

< 시상금 지급 기준표 >
<table><tr><td>상급</td><td>지급액</td><td>인원</td></tr><tr><td>최우수</td><td>200,000원</td><td>1명</td></tr><tr><td>우수</td><td>100,000원</td><td>1명</td></tr><tr><td>장려</td><td>50,000원</td><td>3명</td></tr><tr><td>가작</td><td>30,000원</td><td>5명</td></tr></table></td><td>600,000</td></tr>
<tr><td rowspan="5">'Book새통'</td><td rowspan="4">1차</td><td>1. 강사료 : 1명 * 1회</td><td>500,000</td><td rowspan="5">3,530,500</td></tr>
<tr><td>2. 도서구입 : ₩13,500 * 200권</td><td>2,700,000</td></tr>
<tr><td>3. 홍보물 제작
· 배너 및 현수막 : 247,500원</td><td>247,500</td></tr>
<tr><td>4. 회의비</td><td>83,000</td></tr>
<tr><td>2차</td><td>1. 강사료 및 홍보/진행비 교보문고 후원</td><td>-</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프로그램명</th><th colspan="2" rowspan="2">세부내용</th><th colspan="2">예 산</th></tr>
<tr><th>항목별 금액</th><th>소 계</th></tr>
<tr><td rowspan="12">'밤샘독서'</td><td rowspan="6">1차</td><td>1. 심사 교수비 : 2명 * 1회 * 200,000</td><td>400,000</td><td rowspan="12">8,636,870</td></tr>
<tr><td>2. 독서후기 수상자 시상금
< 시상금 지급 기준표 >
<table><tr><th>상급</th><th>지급액</th><th>인원</th></tr><tr><td>최우수</td><td>200,000원</td><td>1명</td></tr><tr><td>우수</td><td>150,000원</td><td>2명</td></tr><tr><td>장려</td><td>100,000원</td><td>5명</td></tr><tr><td>가작</td><td>50,000원</td><td>5명</td></tr></table></td><td>1,250,000</td></tr>
<tr><td>3. 홍보물 제작: 배너 및 현수막</td><td>276,200</td></tr>
<tr><td>4. 햄버거 및 간식비</td><td>1,861,270</td></tr>
<tr><td>5. 경품 : 문화상품권</td><td>300,000
(eBook 경제상의 이익으로 지출)</td></tr>
<tr><td>6. 진행비
· 물품 구입 : 100,000
· 보조 인건비 : 400,000</td><td>500,000</td></tr>
<tr><td rowspan="6">2차</td><td>1. 심사 교수비 : 2명 * 1회 * 200,000</td><td>400,000</td></tr>
<tr><td>2. 독서후기 수상자 시상금
< 시상금 지급 기준표 >
<table><tr><th>상급</th><th>지급액</th><th>인원</th></tr><tr><td>최우수</td><td>200,000원</td><td>1명</td></tr><tr><td>우수</td><td>150,000원</td><td>2명</td></tr><tr><td>장려</td><td>100,000원</td><td>5명</td></tr><tr><td>가작</td><td>50,000원</td><td>5명</td></tr></table></td><td>1,250,000</td></tr>
<tr><td>3. 홍보물 제작: 배너 및 현수막</td><td>273,440</td></tr>
<tr><td>4. 햄버거 및 간식비</td><td>1,925,960</td></tr>
<tr><td>5. 경품 : 문화상품권</td><td>300,000
(eBook 경제상의 이익으로 지출)</td></tr>
<tr><td>6. 진행비
· 물품 구입 : 100,000
· 보조 인건비 : 400,000</td><td>500,000</td></tr>
<tr><td colspan="3">합 계</td><td>-</td><td>12,967,370</td></tr>
</table>

◇ 2014 - 2019 'Book돋움' 대비표 ◇

구분		주 제		
		2014	2015	2016
'Book드림'	1차	- 나부터 세상을 바꿀 순 없을까? (강수돌) - 총,균,쇠(재레드 다이아몬드)	-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오찬호) -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Robert B. Reich)	- 생명의 느낌 (이블린 폭스 켈러) - 김상욱의 과학공부 (김상욱)
	2차	- 한국 자본주의 모델 (이병천) - 비주얼 컬처 (John A. Walker, Sarah Chaplin)	-	'동계방학 중 학술정보 이용활성화 이벤트' (독서후기 제출)
	3차	-	-	-
'Book새통'	1차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 박웅현 (여덟 단어 저자)	'현재 대학의 '조금은' 슬픈 이야기' / 오찬호 (진격의 대학교 저자)	'한국인의 죽음 이후의 세계' / 서영대 교수 (사학과)
	2차	-	-	20대에게 힘이 되어주는 한 마디 / 정호승 시인
'Book나래'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안전성 문제로 취소)	예산감소로 취소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독서동아리 지원'		북다방 독서삼매경	북다방 독서삼매경	북다방 독서삼매경
'밤샘독서'	1차	-	-	'불금을 정석에서 추억 듬book!'
	2차	-	-	-

구분		주 제		
		2017	2018	2019
'Book드림'	**1차**	'하계방학 중 학술정보 이용활성화 이벤트' (독서후기 공모)	하계방학 'Book드림' (독서후기 공모)	**하계방학 'Book드림' (독서후기 공모)**
	2차	'동계방학 중 학술정보 이용활성화 이벤트' (독서후기 공모)	동계방학 'Book드림' (독서후기 공모)	
	3차			
'Book새통'	**1차**	'연애의 고고학 : 1910~1920년대의 문학적 풍경' / 김동식 교수 (한국어문학과)	'성공하는 사람의 첫 번째 습관' / 김영 교수 (한국어문학과)	**'떨림과 울림' : 물리의 눈으로 본 우주, 세계 그리고 인간 / 김상욱 교수**
	2차	'박준 시인이 들려주는 희망의 메시지 : 바닥에서도 아름답게' / 박준 시인	'막연한 생각은 어떻게 소설이 되는가?' / 김연수 작가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 혜민 스님**
'Book나래'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포석 조명희 문학관	
'독서동아리 지원'		-		
'밤샘독서'	**1차**	'불금을 정석에서 추억 듬book!'	'불금을 정석에서 추억 듬book!'	**'불금을 정석에서 추억 듬book!'**
	2차	'불금을 정석에서 추억 듬book!'	'불금을 정석에서 추억 듬book!'	**'불금을 정석에서 추억 듬book!'**

구분		실 적		
		2014	2015	2016
'Book드림'	1차	도서배부 : 140권 후기접수 : 28건 수상자 : 10명	도서배부 : 200권 후기접수 : 87건 수상자 : 16명	도서구입 : 240권
	2차	도서배부 : 160권 후기접수 : 29건 수상자 : 15명	-	후기접수 : 21건 수상자 : 8명
	3차	-	-	-
'Book새통'	1차	도서배부 : 250권 강연참석 : 355명 후기등록 : 20건 수상자 : 8명	도서배부 : 150권 강연참석 : 190명 후기등록 : 19건 수상자 : 8명	도서구입 : 30권 강연참석 : 190명 후기등록 : 12건 수상자 : 8명
	2차	-	-	도서배부 : 100권 강연참석 : 200명
'Book나래'		사전답사만 진행	-	참여학생 : 26명
'독서동아리 지원'		도서지원 : 20종 / 137권	도서지원 : 15종 / 121권	도서지원 : 11종/69권
'밤샘독서'	1차	-	-	참여학생 : 102명 후기등록 : 68명 수상자 : 13명
	2차	-	-	-

구분		실 적		
		2017	2018	2019
‘Book드림’	1차	후기접수 : 73건 수상자 : 13명	후기접수 : 62건 수상자 : 13명	**후기접수 : 40건** **수상자 : 10명**
	2차	후기접수 : 53건 수상자 : 13명	후기접수 : 71건 수상자 : 13명	
	3차			
‘Book새통’	1차	강연참석 : 121명	강연참석 : 150명	**도서배부 : 200권** **강연참석 : 230명**
	2차	도서배부 : 180권 강연참석 : 229명	도서배부 : 200권 강연참석 : 210명	**도서배부 : -** **강연참석 : 300명**
‘Book나래’		참여학생 : 20명	참여학생 : 12명	
‘독서동아리 지원’		-		
‘밤샘독서’	1차	참여학생 : 80명 후기등록 : 51명 수상자 : 13명	참여학생 : 117명 후기등록 : 75명 수상자 : 13명	**참여학생 : 160명** **후기등록 : 56명** **수상자 : 13명**
	2차	참여학생 : 126명 후기등록 : 56명 수상자 : 13명	참여학생 : 143명 후기등록 : 57명 수상자 : 13명	**참여학생 : 190명** **후기등록 : 44명** **수상자 : 13명**

구분	예 산		
	2014	2015	2016
'Book드림'	도서구입비 : 5,283,600 2회 심사료 : 400,000 상금 : 2,176,390 기타 : 백서발간, 홍보물제작 및 진행비 등 총 10,638,400 집행	도서구입비 : 2,430,000 1회 심사료 : 200,000 상금 : 1,141,830 기타 : 백서제작, 진행비 등 총 5,866,290 집행	도서구입비 : 3,024,000 1회 심사료 : 200,000 상금 : 590,000 기타 : 진행비 등 총 3,814,000 집행
'Book새통'	도서구입비 : 2,625,000 강사료 : 500,000 상금 : 355,500 기타 : 진행비 등 총 4,362,000 집행	도서구입비 : 1,957,500 강사료 : 500,000 상금: 307,710 기타 : 진행비 등 총 3,133,710 집행	도서구입비 : 1,719,000 강사료 : 700,000 - 1차 교내 강사료: 200,000 - 2차 교외 강사료: 500,000 상금 : 300,000 기타 : 진행비 등 총 3,714,810 집행
'Book나래'	사전답사비 총 130,322 집행	-	차량, 도서, 기타진행비 등 총 2,326,570 집행
'독서 동아리 지원'	도서구입비 : 2,000,000 진행비: 200,000 등 총 2,200,000 집행	도서구입비 : 2,000,000 진행비: 200,000 등 총 2,200,000 집행	도서구입비 : 1,258,380 진행비 : 69,300 등 총 1,327,680 집행
'밤샘독서'			심사료 : 400,000 상금 : 1,450,000 기타 : 진행비 등 총 4,214,080 집행
기타	-	-	-
종합	17,330,322	11,200,000	15,397,140

구분	예 산		
	2017	2018	2019
'Book드림'	심사료 : 800,000 1회차 상금 : 800,000 * 2회차 상금(800,000)은 eBook 경제상의 이익으로 집행) 총 1,600,000 집행	1회차 심사료 : 400,000 1회차 상금 : 800,000 2회차 심사료 : 400,000 2회차 상금 : 800,000 총 2,400,000 집행	1회차 심사료 : 200,000 1회차 상금 : 600,000 총 800,000 집행
'Book새통'	도서구입비 : 1,800,000 강사료 : 700,000 - 1차 교내 강사료: 200,000 - 2차 교외 강사료: 500,000 기타 : 진행비 등 총 3,141,100 집행	도서구입비 : 2,340,000 강사료 : 1,200,000 - 1차 교내 강사료: 200,000 - 2차 교외 강사료: 1,000,000 기타 : 진행비 등 총 4,207,000 집행	도서구입비 : 2,700,000 강사료 : 500,000 - 1차 교내 강사료: 500,000 - 2차 교외 강사료: 교보문고 후원 기타 : 진행비 등 총 3,530,500 집행
'Book나래'	차량, 식대, 기타진행비 등 총 1,759,860 집행	강사료, 차량, 식비 등 총 1,206,720 집행	
'독서 동아리 지원'	-		
'밤샘독서'	심사료 : 800,000 상금 : 2,500,000 기타 : 진행비 등 총 7,309,500 집행	심사료 : 800,000 상금 : 2,500,000 기타 : 진행비 등 총 8,375,790 집행	심사료 : 800,000 상금 : 2,500,000 기타 : 진행비 등 총 8,636,870 집행
기타	음악회 : 1,330,700 음악감상회 : 239,500 2018 Book돋움 홍보물: 132,000 총 1,702,200 집행	음악회 : 1,185,900 음악감상회 : 316,650 총 1,502,550 집행	
종합	15,512,660	17,692,060	**12,967,370**

◇ 관련기사 ◇

1. 'Book드림' 관련 기사모음

< 2019학년도 하계방학 우수 독서후기 시상식 >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18일까지 시행된 2019학년도 하계방학 'Book새통'강연자 도서 독서후기 시상이 9월 17일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에서 개관 16주년 기념식 행사 중 일부로 진행되었다.

최종 40건의 독서후기가 접수되었고 우수 독서 후기 수상자는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 이중민 학생을 포함하여 10명이 선정되었다.

* 최우수상 : 김*현(언론정보학과)
* 우수상 : 김*정(교육학과), 김*빈(한국어문학과)
* 장려상 : 남*민(고분자공학과), 김*영(아동심리학과), 공*인(소비자학과) 원*진(중국학과), 고*진(아태물류학부)
* 가작 : 김*겸(정보통신학과), 윤*현(간호학과), 서*희(사회교육과) 임*환(정보통신공학과), 김*림(한국어문학과)

우수 독서후기 수상자에게는 상급별로 상장이 수여되었으며 시상금(최우수상 20만원, 우수상 10만원, 장려상 5만원, 가작 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병찬 관장이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상장을 전달하고 있다.

독서후기 심사를 맡은 송수연 평론가는 공모 대상도서인 <김상욱의 과학공부>가 책머리에 제시하는 "과학과 인문학은 교양 앞에 평등한가?"라는 질문이 새삼스럽게 환기하는 우리사회의 지식의 불균등성에 대한 학생들의 공감이 책을 적극적으로 읽게 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질문에 공감하였고 무지의 깨달음은 앎에 대한 호기심으로 이어졌다는 심사의견을 주었다.

최우수상 수상자가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최우수상을 받은 이중민 학생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분야를 알게 되는 즐거움과 과학이던, 인문학이던 간에 결국 세상과 사람을 향한 관심에서 출발한다는 것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많은 것에 무관심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이 책을 읽는 다른 분들도 저와 같은 즐거움을 공유하기를 바란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우수 독서후기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 'Book새통' 관련 기사모음

<2019학년도 제1차 'Book새통': 과학인문학강좌 개최>

9월 18일 수요일, 2019학년도'Book새통': 과학인문학 강좌가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었다. ACE+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Book새통' 행사는 책 읽는 리더 양성을 위한 독서권장 프로젝트 'Book돋움'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번에는 김상욱 교수를 초청하여 과학인문학 강좌를 진행하였다

Book새통 신청자 접수를 받고 있다.

김상욱 교수는 물리학의 대중화를 위하여 과학 컬럼 연재, 저서 집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TV출연으로 지명도가 높아져 학생들의 행사 관심도가 매우 높았다.

김상욱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Book새통'과학인문학 강좌의 주제는 '떨림과 울림: 물리의 눈으로 본 우주, 세계 그리고 인간'이었다. 우리는 보통 어둠은 빛의 부재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김상욱 교수는 우주는 끝도 없이 어둡지만 간간이 보이는 별들만이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빛은 어둠의 부재라고 설명하면서 강연을 시작하였다.

참석한 학생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태양이 사과라면 지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처럼 작은 존재이고, 아무 것도 없다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어두운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은 기적이며, 우리는 서로를 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강연 후 참석 학생들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강연을 마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과학 전공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다소 어려운 질문도 있었으나 누구나 한번쯤은 궁금해 하는 영혼의 존재여부에 대한 질문에 김상욱 교수는 간단명료하게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상 밖의 답변에 당황한 질문자를 위하여 오늘날 과학자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도록 교육 받았으며, 이것은 과학자의 중요한 태도라고 보충 설명을 해 주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진지하게 질문하는 학생들의 태도도, 다정하게 답변해주는 강연자의 열정도, 열심히 경청하는 청중들 모습 모두가 오늘 행사를 빛나게 해 주었다.

참석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인회 행사에 앞서 김상욱 교수와 정석학술정보관 이병찬 관장이 참석한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행사 마지막으로는 강연 전에 배부 받은 도서에 사인과 사진을 찍는 사인회가 진행되었다. 바쁘신 일정에도 'Book새통'행사에 강연해 주신 김상욱 교수와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주신 학생들 덕분에 행사가 성공적으로 종료되었다.

강연이 끝나고 강연자 사인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9학년도 제2차 'Book새통':인문학강좌 개최>

11월 13일 수요일 2019학년도 제2차 'Book새통' : 인문학강좌가 정석학술정보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었다. 책 읽는 리더 양성을 위한 독서 권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Book새통' 행사는 혜민 스님을 초청하여 인문학 강좌로 진행되었다.

행사에 앞서 Book새통 신청자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가을비로 쌀쌀해진 날씨에도 학부생 및 인천시민을 포함한 300명의 청중이 모여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혜민 스님은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여 행사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혜민 스님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스스로 너무 많은 책임을 떠안거나 세상 탓 만을 하지 말고 스스로를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셨다. 또한 타인과 자연, 그리고 자기 자신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임을 말씀하셨다.

**혜민 스님이 <고요할 수록 밝아지는 것들>
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그와 함께 자기 자신과 연결되기 위하여 명상을 통해 호흡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고요해진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명상이 이루어지며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게 될 수 있고 말씀하신 후 다 함께 명상의 시간을 가졌다.

**국제회의장을 가득 메운 많은 청중들이
바닥에 앉아 강연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옆 사람의 손을 닦아주고 함께 손잡고 노래하는 등 유쾌한 강의 진행으로 강연장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방향성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단점보다 장점에 초점을 맞출 수록 삶이 행복할 수 있음을 설파하셨다.

청중들이 두 팔을 들고 즐겁게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에게 친절할 때 세상에도 친절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스스로를 안아주는 시간을 가지며 강의 를 마쳤다. 바쁘신 일정에도 'Book새통'행사에 강연해 주신 혜민 스님과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드린다.

4. '밤샘독서' 관련 기사모음

< 2019학년도 1차 '밤샘독서'이벤트 - 불금을 정석에서 추억 듬book! >

지난 5월 24일~25일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이 지원하는 독서권장 프로젝트 'Book돋움'의 일환으로 밤샘독서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밤샘독서는 2016년 11월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신선하고 알찬 독서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2017년부터는 봄과 가을 2회에 걸친 정기 행사로 자리 잡았다.
밤샘독서의 관심은 사전 신청 때부터 드러나 접수가 조기 마감되었고, 독서 열정을 가진 16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2019-1차 밤샘독서 신청 학생들의 현장 접수를 받고 있다

행사 시작 전 학생들에게 행사일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정석학술정보관 김봉세 부관장과 이병찬 관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봉세 부관장은 "일탈"이라는 주제로 학생들에게 행사를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를 당부하였다.

정석학술정보관 김봉세 부관장이 행사를 안내하고 있다

이병찬 관장은 "좋은 추억을 많이 쌓기를 바란다."라는 인사로 책과 함께 다양한 즐길 거리가 준비된 밤샘독서 행사를 예고했다.

정석학술정보관 이병찬 관장이 학생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밤샘독서 여정은 '불금을 정석에서 추억 듬Book' 행사명을 힘차게 외치며 시작되었다. 먼저 이병찬 관장이 '불금을' 하면 학생들이 '정석에서', 다시 김봉세 부관장이 '추억'을 선창하면 참가자들이 '듬Book'을 힘차게 제창하였다.

참가 학생들의 힘찬 파이팅으로 행사가 시작되고 있다

밤샘독서는 행사명처럼 24일 저녁 10시부터 25일 아침 6시까지 진행되었다. 참가 학생들이 정석100선, 테마추천도서를 선택해서 읽고 독서 후기를 제출하면, 우수 후기 작성자에게는 총 125만원 상당의 시상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새벽에는 지난해에 큰 호응을 받았던 '인하 사랑 배지 찾기'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즉석에서 간단한 게임을 하여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있었다.

참가자들이 서가에서 배지를 찾고 있다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책읽기와 더불어 대학생활 중에 뜻깊은 추억을 만들고자 참가한 학생들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맛있는 간식을 제공하였다. 참가한 학생들은 자유롭게 책을 읽으면서 그래비티를 작성하여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기념하였다.

행사 참가 학생들이 그래피티를 작성하고 있다

밤샘독서는 학업과 취업준비 등에 치여 책 읽는 즐거움과 학창시절의 추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인하인에게 친구들과 함께 또는 혼자 밤을 새면서 독서의 매력에 빠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다.

밤샘독서 참가 학생들은 선정한 책을 읽고 독서후기를 제출한다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이번 밤샘독서가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인하인의 평생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이병찬 관장이하 담당부서의 열정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2019-1차 밤샘독서 우수 독서후기 시상식이 6월 13일 정석학술정보관 로비에서 진행되었다. 제출된 독서후기 가운데 13건의 우수작을 선정하였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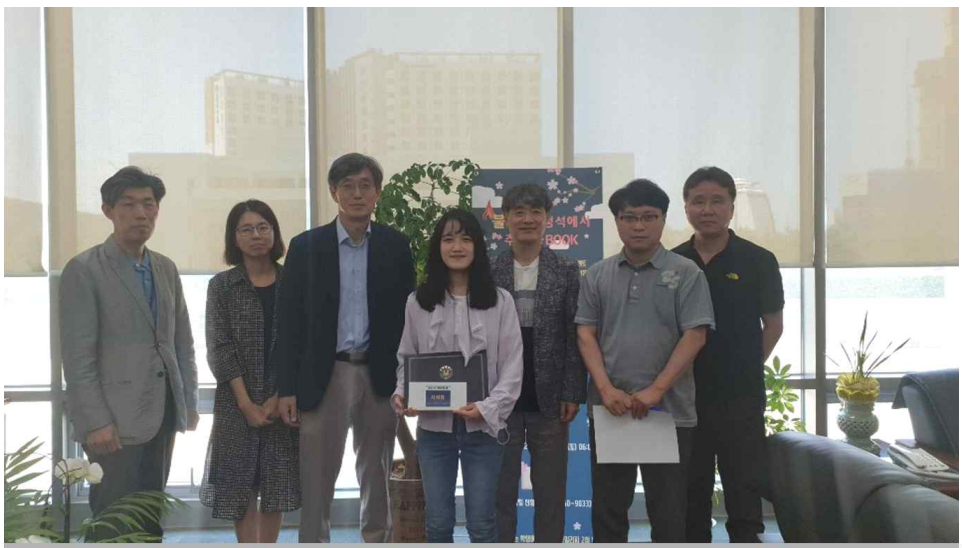
* 최우수상 : 공*원 (간호학과)
* 우 수 상 : 이*송 (철학과), 김*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 장 려 상 : 박*형(철학과), 강*혜 (해양과학과)
  정*희(전기공학과), 강*빈(아태물류학부)
  유*지(행정학과)
* 가 작 : 채*선(경제학과), 정*종(경영학과)
  이*민(경영학과), 이*진(국어교육과)
  한*훈(문화콘텐츠경영학과)

우수 독서후기 수상자에게는 시상금(최우수상 20만원, 우수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가작 5만원)이 지급되었다.

정석학술정보관 이병찬 관장님이 수상자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이병찬 관장은 "도서관에서 자주 보니 반갑고, 정석학술정보관의 독서장려 대표 프로그램 밤샘독서 독서후기 수상작에 선정되신 걸 축하한다. 시상식을 빛내줘서 감사하다."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심사는 외부 전문위원으로 송수연, 김경은 선생님께서 맡아 주셨다. 심사평으로 학교 서관에서 밤을 새워 책을 읽는다'-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가. 어쩌면 '밤샘독서'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쯤으로나 기억될, 혹은 기록의 저 구석에나 존재할 '대학생활의 낭만'을, 그 여유를 다시 호출하는 것인지도 르겠다. 다양한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 낸 학생들의 글에서 느껴진 앎에 대한 두근거림, 순수한 기쁨, 작지만 반짝이는 열망들을 읽으면서 함께 기뻐하고 동요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다양한 읽기, 새로운 시각, 깊이 있는 해석을 만날 수 있어서 즐거웠다.- 송수연 선생님은 심사평을 전했다 심사평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공*원 학생과 다같이 기념사진

최우수상을 수상한 간호학과 공*원 학생은 " 평소 책을 좋아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즐거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졸업 전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어 좋았고, 친구들에게도 밤샘독서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고 싶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독서후기 수상자들과 정석학술정보관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2019학년도 2차 '밤샘독서' 우수 독서후기 시상식 진행 >

지난 11월 15일~16일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이 지원하는 독서권장 프로젝트 'Book돋움'의 일환으로 밤샘독서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밤샘독서는 2016년 11월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신선하고 알찬 독서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2017년부터는 봄과 가을 2회에 걸친 정기 행사로 자리 잡았다.
밤샘독서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져 사전 신청이 조기 마감되었고, 19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2019-2차 밤샘독서 신청 학생들의 현장 접수를 받고 있다

행사 시작 전 학생들에게 행사일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정석학술정보관 김봉세 부관장과 이병찬 관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봉세 부관장은 학생들이 책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으며 "내가 나를 사랑하자"라고 강조하였다.

정석학술정보관 김봉세 부관장님이 밤샘독서를 안내하고 있다

이병찬 관장님은 "도서관 대표 행사인 밤샘독서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란 말로 참가한 학생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인하대생에게 좋은 추억인 밤샘독서를 활성화해서 졸업후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활성화시키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도서관의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 한 밤샘독서에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기를 바란다."고 하시면서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정석학술정보관 이병찬 관장님이 학생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밤샘독서 여정은 '불금을 정석에서 추억 듬Book' 행사명을 힘차게 외치며 시작되었다. 먼저 이병찬 관장이 '불금을' 하면 학생들이 '정석에서', 다시 이병찬 관장이 '추억'을 선창하면 참가자들이 '듬Book'을 힘차게 제창하였다.

참가 학생들의 힘찬 파이팅으로 밤샘독서를 시작하고 있다

밤샘독서는 행사명처럼 15일 저녁 10시부터 16일 아침 6시까지 진행되었다. 참가 학생들이 정석100선, 테마추천도서를 선택해서 읽고 독서 후기를 제출하면, 우수 후기 작성자에게는 총 125만원 상당의 시상금이 제공될 예정이다.

새벽에는 매 행사 때마다 큰 호응을 받았던 '인하 사랑 배지 찾기'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이번 행사부터는 정석백선 'OX퀴즈' 를 진행해 학생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었으며, 다양한 상품을 제공 하였다.

참가 학생들이 OX퀴즈 이벤트를 참여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책읽기와 더불어 대학생활 중에 뜻깊은 추억을 만들고자 참가한 학생들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맛있는 간식을 제공하였다. 참가한 학생들은 자유롭게 책을 읽으면서 그래비티를 작성하여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을 기념하였다.

행사 참가 학생들의 그래피티

밤샘독서 참가 학생들의 즐거운 장기자랑 시간

밤샘독서는 학업과 취업준비 등에 치여 책 읽는 즐거움과 학창시절의 추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인하인에게 친구들과 함께 또는 혼자 밤을 새면서 독서의 매력에 빠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되었다.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학생들의 참여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고자 밤샘독서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비교과 마일리지 2점과 수료증을 수여한다.

참가한 학생들은 책을 읽고 독서후기를 제출한다.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이번 밤샘독서가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인하인의 평생 독서습관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이병찬 관장이하 담당부서의 열정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인하인의 독서문화 증진은 도서관의 핵심 과제이기에, 앞으로도 정석학술정보관에서는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환하게 빛나고 있는 정석학술정보관 3층 인문과학정보실 야경이다

2019-2차 밤샘독서 우수 독서후기 시상식이 12월 5일 정석학술정보관 로비에서 진행되었다. 제출된 독서후기 가운데 13건의 우수작을 선정하였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최우수상 : 이*정(경영학)
* 우 수 상 : 이*수(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 오*비(행정학)
* 장 려 상 : 김*니(교육학), 김*은(경영학)
  안*은(국어교육), 박*형(철학), 심*주(컴퓨터공학)
* 가 작 : 박*민(철학), 강*혜(해양과학)
  백*욱(생명공학), 서*우(철학), 이*영(국어교육)

우수 독서후기 수상자에게는 시상금(최우수상 20만원, 우수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가작 5만원)이 지급되었다.

정석학술정보관 이병찬 관장이 수상자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병찬 관장은 "책을 읽는 것은 사고를 넓히는 활동이다. 책을 많이 읽고 힘찬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다. 밤샘독서 시상식을 빛내줘서 감사하다."라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심사를 맡은 프런티어학부 송수연, 이설야 선생님은 "학생들의 후기에서 공간의 전이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 전이(轉移)가 책 읽기의 성격을 바꾸었다는 것이 '밤샘독서'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다. 학습이나 취업과 같은 목적적 독서가 아닌, 재미와 자기만족을 위한 비목적 혹은 무목적적 독서가 주는 즐거움이야말로 진정한 책읽기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심사평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정 학생과 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영학과 "심사평으로 적어주신 내용처럼 도서관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무척 좋았고,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런 상을 수상해서 무척 기쁘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독서후기 수상자들과 정석학술정보관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정석 100선' 목록 ◇

[자연과학]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1	가이아	제임스 러브록	갈라파고스
2	거의 모든것의 역사	빌 브라이슨	까치글방
3	과학	존 그리빈	들녘
4	과학혁명의 구조	토마스 쿤	까치글방
5	김상욱의 과학공부	김상욱	동아시아
6	링크	알버트 바라바시	동아시아
7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스티븐 핑커	동녘사이언스
8	부분과 전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지식산업사
9	생명이란 무엇인가	에르빈 슈뢰딩거	한울
10	시간의 역사	스티븐 호킹	까치글방
11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을유문화사
12	이중나선	제임스 왓슨	궁리
13	인간의 그늘에서	제인 구달	사이언스북스
14	코스모스	칼 세이건	사이언스북스
15	털 없는 원숭이	데즈먼드 모리스	문예춘추사

[인문학]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1	간디 자서전	마하트마 간디	동해출판
2	고백록	아우구스티누스	포이에마
3	국가	플라톤	아름다운날
4	그리스 로마 신화	토마스 불핀치	혜원출판사
5	논어	공자	민음사
6	다산시선	정약용	창비
7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스	김영사
8	맹자	맹자	민음사
9	문명의 충돌	새뮤얼 헌팅턴	김영사
10	방법서설	데카르트	문예출판사
11	사기열전	사마천	청아출판사
12	삼국유사	일연	을유문화사
13	세계사 편력	자와할랄 네루	일빛
14	스피노자의 뇌	안토니오 다마지오	사이언스북스
15	역사 속의 영웅들	윌 듀런트	김영사
16	역사란 무엇인가	에드워드 카	육문사
17	인간의 이해력에 관한 탐구	데이비드 흄	지식을만드는지식
18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센델	김영사
19	존재와 무	장 폴 사르트르	살림출판사
20	죽음에 이르는 병	키에르케고르	비전북
21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	웅진씽크빅
22	통섭	에드워드 윌슨	사이언스북스
23	향연	플라톤	이제이북스

[문학]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1	관촌수필	이문구	문학과지성사
2	광장	최인훈	문학과지성사
3	구운몽	김만중	문학동네
4	나목	박완서	민음사
5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조세희	커뮤니케이션북스
6	당신들의 천국	이청준	문학과지성사
7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오스카 와일드	열린책들
8	돈키호테	미구엘 드 세르반테스	시공사
9	마당 깊은 집	김원일	문학과지성사
10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혜원출판사
11	무정	이광수	재승출판
12	무진기행	김승옥	범우사
13	변신	프란츠 카프카	더난출판사
14	사반의 십자가	김동리	계간문예
15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셰익스피어	시공사
16	수상록	몽테뉴	육문사
17	신곡	단테	동서문화사
18	아Q정전	루쉰	문학동네
19	오이디푸스	소포클레스	민음사
20	월든	헨리 데이빗 소로우	은행나무
21	위대한 개츠비	F. 스콧 피츠제럴드	문학동네
22	위대한 유산	찰스 디킨스	북로드
23	이방인	알베르 까뮈	부북스
24	인도로 가는 길	E. M. 포스터	열린책들
25	인형의 집	헨리크 입센	민음사
26	젊은 예술가의 초상	제임스 조이스	느낌이있는책
27	주홍글씨	호손	브라운힐
28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민음사
29	카라마조프 형제들	도스토옙스키	동서문화사
30	칼의 노래	김훈	문학동네
31	토지	박경리	마로니에북스
32	파우스트	괴테	을유문화사
33	호밀밭의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샐린저	하서출판사
34	호질,양반전,허생전	박지원	범우사
35	혼불	최명희	한길사
36	황석영(객지)	황석영	창비

[예술]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1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아르놀트 하우저	창비
2	베토벤의 생애	로맹 롤랑	문예출판사
3	서양미술사	에른스트 곰브리치	예경
4	예술로서의 영화	랄프 스티븐슨	열화당
5	예술이란 무엇인가	레프 톨스토이	신원문화사
6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솔

[사회과학]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1	감시와 처벌	미셸 푸코	나남출판
2	국부론	애덤 스미스	비봉출판사
3	국화와 칼	루스 베네딕트	을유문화사
4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까치글방
5	도덕적 동물	로버트 라이트	사이언스북스
6	리바이어던	홉스	서해문집
7	법의 정신	몽테스키외	동서문화사
8	불평등의 대가	조지프 스티글리츠	열린책들
9	생각의 탄생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에코의서재
10	세계전쟁사	존 키건	까치
11	소유냐, 존재냐	에리히 프롬	까치
12	에밀	루소	미네르바
13	엔트로피	제레미 리프킨	세종연구원
14	유토피아	토마스 모어	웅진씽크빅
15	일차원적 인간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한마음사
16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펭귄클래식코리아
17	제3의 물결	엘빈 토플러	홍신문화사
18	총,균,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문학사상사
19	페다고지	파울로 프레이리	그린비
20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	풀빛

2019 'Book돋움' 백서

2020 년 3 월 27 일 발행

발 행 인 이 병 찬

발 행 처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편집위원 김 봉 세
이 혜 경
김 경 모
홍 미 란
이 선 영
김 용 해
신 영 진